

[토론]

독일 켐프텐농업직업학교와 한국의 농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비교

김현묵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 교사

독일 켐프텐농업직업학교와 한국의 농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비교

김현묵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 교사

□ 독일 켐프텐농업직업학교와 우리나라 농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비교

구분	독일 켐프텐농업직업학교	한국 일반 농업계 고등학교	시사점
교육목표	농업인이 되기 위한 교육	농업 및 농업관련직에 종사할 기술인 육성	종국교육과 계속교육의 차이가 있음
1학년 과정	주4일 학교수업, 주1일 농장실습 종교, 독일어, 사회, 체육 등 일반교과 + 식물생산 등의 기술교육 중심	주5일 학교수업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일반 고등학교와 유사) + 농업기초과목	생태학, 자연환경, 토양, 문화관광, 가축생산 등 기술교육에 대한 수준이 전문적임
가정환경	학부모의 농업적 기반이 충실함 (농장, 가축 등)	학부모의 농업적 기반이 거의 없음	졸업후 자영이 어려운 여건임
2, 3 학년 과정	주1일 학교수업, 주4일 농장실습 실습기관: 주 농림식품부, 농업회의소, 마이스터 자격을 지닌 강사 있는 농장 등 조건이 엄격함. 직원과 동일한 보험 가입	주5일 학교수업, 3학년 2학기에 한시적 현장실습(희망자) 현장실습기관에 대하여 도교육청 및 노무사 등의 사전 점검을 통해 현장실습 선도기업, 참여기업 선정 4대 보험 적용 기업 우대	학생들을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농업경영체의 발굴이 시급함
임금 및 장려금	6개월, 12개월 등으로 구분하여 임금이 높아짐	기업에서 현장실습을 진행하는 경우 국가에서 실습장려금을 학생과 기업에 지급함	투자 대비 효과성에 의문이 있음
졸업시험	학교: 이론시험, 농장: 실습시험 최종합격자는 농민자격증 부여	졸업시험이 따로 있지 않고, 의무검정 성격의 기능사 시험 응시 식품가공기능사, 제빵기능사, 종자기능사 등	목적에 차이가 있음

□ 우리나라 농업계 고등학교의 현황

순수농고(32개)					기타(37개)			합계
일반 농업계고		자영농고			실업고	종합고	고등기술학교	69개
순수농고	마이스터고	마이스터고	미래농고(창조농고)	순수자영농고				
17개	5개	2개	3개	5개	26개 (자영농고 2개포함)	10개	1개	

□ 우리나라 현장실습 운영 사례

- 농업계를 비롯한 모든 특성화고등학교는 졸업 전에 1주일 이상(계열별, 학교별로 상이함)의 현장실습을 이수하게 되어 있음.(직업교육 훈련촉진법 등)
- 원칙적으로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시행하여야 하지만, 여건이 맞지 않는 경우 교내의 프로그램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고, 산업체로 현장실습을 하러 가는 경우는 졸업 후 그 분야의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 위주로 운영됨.
- 농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농장이나 목장 등 생산 농가로 현장실습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식품회사, 농기계업체, 조경업체 등 농업 관련 산업체나 농업회사 법인 등에서 현장실습을 진행함.
- 특히 우리나라는 현장실습 기간 중 학생사고가 발생했을 때 매우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일이 한두 건 발생하는 경우 많은 후유증과 현장실습 위축 현상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음.
- 농업계고의 학교 체제 개편과 투자를 통해 다각적인 농업인력양성 육성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

□ 자영농고, 마이스터고, 미래농고(창조농고)의 운영 목표

1)자영농고

- 졸업 후 전문농업경영인 양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학교로서 부모님의 농업적 배경이 중요하며 학교에서 배운 전문기술을 바탕으로 부모님의 사업을 이어서 영농에 종사한다면 가장 적합한 학교 형태라고 볼 수 있다.

2)마이스터고

- 지역의 주력 산업체와 MOU를 체결하여 해당 업체에서 필요한 인재를 학교와 산업체의 인사들이 협력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함께 지도함으로써 기업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고 졸업과 동시에 취업으로 이어지게 하는 모델을 가진 학교들이다. 예)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 - 충북지역의 바이오 제약회사의 협업

3)미래농고

-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2016년부터 지정, 운영하는 미래농업선도학교를 의미하는데, 중등단계의 청년농업경영인 육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현장 중심 교육 활동(WPL, 마이스터농가, 선도 농가 및 농업 전문기관 등, 산업체에서 단기 체류하며 도제형식 교육으로 실습 중심 교육 활동을 하고 있으나 실제 졸업 후 청년농으로 진입하는 것은 미미한 실정임.

□ 향후 과제

- 1)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예비 농업인이 될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의 인프라 구축이 절실함.
- 2) 안정적으로 안심하고 현장실습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함(사고에 대비한 사전 점검, 보험, 사후 대책 등)
- 3) 독일의 농업인처럼 우리도 농업인으로서 자부심을 품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고,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농업을 경영하더라도 소득이 보장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 법령의 제정 및 시행.
- 4) 전국의 농업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부분적으로나마 dual system을 시행할 수 있는 시범학교 운영.